

ㅎ말음의 변화와 어간 재구조화

정영호*

- I. 서론
- II. 고대국어의 ㅎ말음
- III. ㅎ말음 어간의 재구조화
- IV. ㅎ말음 소멸의 시기 및 원인
- V. 결론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대국어 자료인 향가에도 어간 말음 ㅎ를 반영하는 표기가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어간 말음 ㅎ의 변화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살펴보았다.

향가 표기에 사용된 ‘盼’, ‘中’과 ‘希’, ‘ㄱ>ㅎ’ 변화형 등이 어간 말음 ㅎ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말음 ㅎ가 후기중세국어의 체언에서 복수 어간으로 ‘/XVh-/~/XV-/’와 같은 교체를 보이다가 근대국어 이후 단일 어간 ‘/XV-/’로 어간의 재구조화가 일어남을 밝혔다. 이와 달리 용언은 단일 어간 ‘/XVh-/’에 규칙이 적용되어 체언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반면 ㅎ말음을 가지지 않았던 체언들에 모음 조사가 연결될 때 말음 ㅎ가 나타나는 경우가

* 영남대학교 강사

있는데 절음화에 기인한 현실음의 반영으로 보았다.

ㅎ말음은 역사적으로 소멸해 가고 있는데 고대국어부터 근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소멸은 ‘ㄱ>ㅎ’의 변화가 원인이 되어 유성음 사이의 환경에서 약화 탈락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I. 서론

국어의 자음들 중에서 ㅎ은 그 음성적 특성으로 인해 일찍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지금까지 ㅎ에 대한 연구는 주로 ㅎ말음의 기원 혹은 발생, ㅎ말음의 형태론적 교체, ㅎ말음과 관련된 음운현상에 집중되어 왔으며 그간의 연구 성과도 지대하다. 하지만 알타이제어와의 비교 내지는 15세기 이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고대국어를 반영하고 있는 향가 자료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많지 않다.

고대국어 자료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에 연유하는 바가 크겠지만, 만약 고대국어 시기에조차 어간 말음 ㅎ가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면, 이에 대한 연구도 폭넓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기왕의 연구에서는 15세기 이후의 정음 문헌에 나오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어간 말음 ㅎ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시기의 문헌에 보이는 ㅎ유지형과 ㅎ탈락형을 가지고 ㅎ말음이 이미 15세기에 동요되기 시작하여 18세기 이후에는 거의 소실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고대국어 자료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 ㅎ말음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ㅎ말음의 역사적 변화 과정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이 글은 차자 표기 중 향가 자료의 해석을 통해 고대국어에서의 어간 말음 ㅎ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말음 ㅎ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과정에서 ㅎ말음이 소멸된 시기 및 소멸의 원인도 밝혀지게 될 것이다. 우선 어간 말음 ㅎ가 원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발생한 것인지의 문제부터 검토해야 하지만, 이 글에서는 모음과 모음 사이 환경에서의 ‘ㄱ>ㅎ’ 변화와 어간말 모음의 탈락으로 인한 음절 구조의 변화에 의해 어간 말음 ㅎ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

ㅎ말음 어간 중 ㅎ말음 체언의 경우, 15세기에 ㅎ유지형과 ㅎ탈락형이 공존하다가 이후 소멸의 과정을 겪어 현대 국어에서는 복합어에 보이는 화석형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기저형의 변화, 즉 재구조화(restructuring)로 보고 그 변화 과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¹⁾ ㅎ말음 용언의 경우도 이런 관점으로 그 변화의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어간 말음 ㅎ가 소멸된 시기는 언제이며, 소멸의 원인은 무엇이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고찰하도록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ㅎ말음과 관련된 제반 현상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2장에서는 고대국어에서 ㅎ말음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향가 자료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15세기 이후 ㅎ말음의 변화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어간 말음 ㅎ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음운 현상에 대해서도 고찰하게 될 것이다. 4장에서는 어간말 ㅎ의 소멸의 시기와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재구조화는 음운론적 요인, 형태론적 요인, 재분석(reanalysis), 유추(analogy), 혼효(blending), 감염(contamination)에 의해 일어나는데, 이 글에서는 주로 복수 어간의 단일 어간화, 유추 등을 통해 ㅎ말음의 변화를 설명할 것이다.

II. 고대국어의 ㅎ말음

13세기 중엽에는 음절말 내지 어말에서 ‘ㅎ’이 제대로 발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이러한 ‘ㅎ’ 표기는 대부분 후기중세국어의 ㅎ말음 체언의 그것과 대응한다는 점에서 차자 표기의 말음 ‘ㅎ’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여기서는 고대 국어에서의 어간 말음 ㅎ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향가 자료를 검토해 보기로 하되, 체언 어간 말음 ㅎ에 대해서만 검토하기로 한다.³⁾ 먼저 체언 어간 말음 ㅎ를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향가의 원문과 그 해독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향가 원문과 해독

출전	향가	원문	해독 ⁴⁾
삼국유사	모죽지랑가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막술히/굴형-히(굴형히)/굴히
	현화가	紫布岩乎过希	조히/조-히(조세)/서리히
		吾盼不喻懶伊賜等	나힐/나-힐(나릴)/나힐
		吾盼不喻懶伊賜等	벗힐/벗그라-힐(벗글-)/허물힐
	안민가	花盼折叱可獻乎理音如	꽃힐/꽃-힐(고졸)/꽃힐
		窟理叱大盼生以支所音物生	다히/한-힐(하늘)/다힐
		此盼喚惡支治良羅	이힐/이-힐(이름)/이힐
		此地盼捨遣只於是去於丁爲尸知	짜힐/짜-힐(짜힐)/짜힐
		國惡支持以支知古如	나라악/나라-악(나라)/나라기
	國惡太平恨音叱多	나라악/나라-악(나라)/나라	
	찬기과랑가	逸鳥川理叱禳惡希	지벽히/지벽-악(지벽기)/즈갈아히
		心未末際叱盼逐內良齊	조힐/조-스-힐(조술)/조술힐

- 2) 이기문(1972:85)에서는 ‘薯蕷 尔支’(향약구급방)의 ‘支’가 ‘ㅎ’을 표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ㄱ>ㅎ’ 변화를 반영하는 표기로 해석하기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II.2. 참조
- 3) 용언의 경우 ‘放教遣’(현화가), ‘毛乎支’(도천수관음가) 등이 후기중세국어 이후 문헌에서 ‘노하’(석보상절 6:1), ‘모흔’(삼역총해 5:12)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 어간 말음 ㅎ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만 어간말 모음이 탈락하기 전의 표기를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처용가	脚烏伊四是良羅	네히어라/네ㅎ-이-랑-라(네히러라)/넉이라 라
		二盼隱吾下於叱古 二盼隱誰支下焉古	둘흔/두블-홀-은(두보른)/두블흔 둘흔/두블-홀-은(두보른)/두블흔
	도천수관음가	陸盼古召拈	무루플/무류-홀(무루플)/무류홀
		千隱手叱千隱目盼 一等下叱放一等盼除惡支	눈홀/눈-홀(누늘)/눈홀 ㅎ든홀/ㅎ든-홀(ㅎ드늘)/ㅎ든홀
	해성가	乾達婆矣 遊烏隱城叱盼良望古	갓홀란갓-스-홀-랑(자슬랑)/자시홀랑
관 여 전	칭찬여래가	際于萬隱德海盼	데미덜홀/데미홀(데미롤)/데미덜홀
	칭불주세가	世呂中止以友白乎等耶	누리히/누리-려-히(누리히)/누리히
	상수불학가	命乙施好尸歲史中置	소히두/스시-사-히-두(스시히도)/스시히두
	항순중생가	迷火隱乙根中沙音賜焉逸良	불휘/불휘-히(불휘)/불휘
	보개회향가	衆生叱海惡中 佛體叱海等成留焉日尸恨	바들악히/바들-악-히(바들아기)/바들아히 날흔/날-흔(나른)/날흔

위 <표>의 향가 원문과 해독을 보면, 목적격조사로 ‘盼’, 처소격조사로 ‘中’과 ‘希’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盼’과 ‘希’는 음독(音讀)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中’의 경우는 차자표기에서 ‘ㄱ’로 읽히는 것으로 처소격조사의 형태로 널리 쓰인다.⁵⁾ 또한 ‘ㄱ>ㅎ’ 변화에서 기원적인 ‘ㄱ’을 보여주는 표기도 발견된다. 여기서는 목적격조사 ‘盼’, 처소격조사 ‘中’과 ‘希’, 기타 등으로 나누어 이들이 체언 어간 말음 ㅎ를 반영한 것임을 밝히도록 한다.

4) 향가의 해독은 ‘양주동(1965)/김완진(1980)/유창균(1994)’에서의 해독을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다. 단, 김완진(1980:10)에서는 전자(轉字)와 전사(轉寫)의 두 단계로 해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사를 괄호에 넣어 전자와 구별하도록 한다.

5) 유창균(1994:253)에서는 향가에 쓰인 처소격조사 ‘中’이 음운변화에 따라 ‘기/괴(中)→히/희(希)→의(衣)矣’와 같이 교체되고, ‘히/희’의 단계에서도 습관적으로 ‘中’을 쓰기도 했을 것으로 본다.

1. 목적격조사 ‘盼’

향가 표기에는 목적격조사로 ‘盼’과 ‘乙’이 널리 사용되었는데, ‘盼’이 사용된 예 중에서 어간 말음 ㅎ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예들이 있다.

- (1) ㄱ. 地盼(안민가) ㄴ. 二盼隱(처용가)
 ㄷ. 一等盼(도천수관음가) ㄹ. 德海盼(칭찬여래가)

(1ㄱ~ㄹ)은 후기중세국어의 ㅎ말음 체언의 활용형인 ‘자홀’(석보 6:34), ‘둘흔’(월석 7:44), ‘흐나홀’(석보 6:22), ‘바다히’(월석 1:23)에 각각 대응한다는 점에서 향가 시기에 이 어휘들의 어간말에 말음 ㅎ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즉, (1)의 ‘盼’은 어간 말음이 ㅎ일 경우 사용한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乙’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1ㄴ) ‘二盼隱’의 경우, ‘二尸掌音毛乎支內良’(도천수관음가)의 ‘二尸’과 비교하여 말음 ㅎ의 실현 여부에 차이를 보인다. ‘二盼隱’은 어간에 ‘隱’이라는 모음 조사가 연결됨으로써 말음 ㅎ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盼’을 쓴 것이며, ‘二尸’은 ‘二尸#掌’으로써 말음 ㅎ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盼’ 대신 ‘尸’을 쓴 것이다(유창균 1994:522-523). 이러한 해석은 후기중세국어에서 어간 말음 ㅎ가 모음이 후행할 때 실현되고, 단독형일 때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반면 후기중세국어에는 어간 말음 ㅎ가 나타나지 않지만 향가 시기에만 목적격조사 ‘盼’이 사용된 경우도 있다.

- (2) ㄱ. 湄盼(현화가) ㄴ. 此盼(안민가) ㄷ. 目盼(도천수관음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1)에 사용된 ‘盼’이 어간 말음 ㅎ를 반영한 것이라면, (2)에 제시한 ‘湄’, ‘此’, ‘目’도 ㅎ말음을 가진 체언으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어휘는 ‘나를’(석보 6:4), ‘눈을’(변소 8:5), ‘이를’(훈연 2)과 같이 후기중세국어 이후에는 어간 말음 ㅎ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도 이들의 어간 말음 ㅎ는 후기중세국어 이전 시기에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기중세국어에는 ㅎ말음 체언과 ㄱ, ㄷ 등의 자음어미가 결합할 때 후행하는 ㄱ, ㄷ가 유기음으로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2ㄱ)의 ‘폼’을 ㅎ말음 체언이라고 할 때, ‘폼置’(항순중생가)에서 후행하는 조사 ‘置’의 초성은 후기중세국어와는 달리 유기음화가 반영되지 않아 흥미롭다.

후기중세국어는 모음과 공명자음 ㄹ, ㅁ, ㄴ, ㅇ 뒤에서만 어간 말음 ㅎ가 나타나지만, 고대국어는 무성자음 뒤에서도 어간 말음 ㅎ를 가진 어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3) ㄱ. 花盼(헌화가) ㄴ. 膝盼(도천수관음가)

(3)의 ‘花’, ‘膝’은 후기중세국어 문헌에는 각각 ‘꽃’, ‘무릎’으로 어간 말음 ㅎ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3)의 ‘花盼’, ‘膝盼’에도 어간 말음 ㅎ가 반영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3)의 ‘花盼’, ‘膝盼’에는 어간 말음 ㅎ가 반영되었으나 후기중세국어에 와서 소멸된 것인가? 이들 예에서 목적격조사로 사용된 ‘盼’을 어떻게 해독하느냐에 따라 ‘花’, ‘膝’의 어간 말음 ㅎ의 존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여기서 (3)에 대한 선행 연구의 해독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4) ㄱ. 꽃홀, 무릎플(양주동 1965) ㄴ. 고출, 무릎플(서재극 1975)

ㄷ. 고줄, 무릎플(김완진 1980) ㄹ. 골홀, 무릎홀(유창균 1994)

(4)의 해독을 보면 ‘花盼’은 ‘꽃홀, 고출, 고줄, 골홀’ 등으로 다양하게 해독되고 있으며, ‘膝盼’은 대체로 ‘무릎플, 무릎홀’로 해독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4ㄱ~ㄷ)은 ‘盼’을 목적격조사 ‘홀/홀’로

읽지 않지만, (4ㄷ)은 일관되게 ‘홀/홀’로 읽고 있다.⁶⁾ 그런데 향가 표기에서 목적격조사로 ‘乙’이 쓰인 예가 있음을 볼 때, ‘吩’은 체언 어간 말음 ㅎ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ㄱ)의 ‘무루플’, (4ㄴ)의 ‘고출, 무루플’, (4ㄷ)의 ‘고즐, 무루플’은 ‘吩’이 ‘홀/홀’로 읽힌다는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더욱이 (4ㄴ)은 어말 ㅈ와 표를 각각 ‘ㅈ+ㅎ’, ‘ㅂ+ㅎ’로 재분석하여 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향가에 이러한 표기가 있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고대국어에서 ‘ㅈ, ㅈ’을 비롯한 모든 자음이 음절말 위치에서도 제대로 음가를 가지고 있었다(이기문 1998:84)고 하더라도, ‘吩’을 어간말 자음 ㅎ의 반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재음소화된 표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수긍할 수 없다. 15세기의 형태 ‘무릎’이 18세기에 와서야 ‘무릅홀’(오륜전비언해 6:24b)과 같이 재분석 표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4ㄷ)은 ‘吩’에 대해 일관되게 ‘홀’로 해독하고 있으나, ‘花吩’을 ‘꽃홀’로 해독할 때 ㅈ와 ㅎ의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花’의 초기 형태를 ‘골’로 가정하고 있다. ‘黑牧丹 고리’(시용향약보, 大王飯)의 ‘고리’를 ‘花’로 보았고, 고대 지명 표기의 한자음 분석을 통해 ‘골홀’로 해독하고 있다(유창균 1994:296-299). 반면 ‘膝吩’에 대해서는 ‘무릅홀’로 해독하여 ㅂ와 ㅎ의 연결을 허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花吩’과 ‘膝吩’의 ‘吩’은 체언 어간 말음 ㅎ가 반영된 것이고, 후기중세국어에 체언이 ‘꽃’과 ‘무릎’으로 표기된 것을 고려하여, ‘花吩’은 ‘꽃홀’, ‘膝吩’은 ‘무릅홀’로 해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해독할 경우 절대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김완진(1980:17-23)에서의 훈주음종(訓主音從)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후 이 어휘들은 어간 말음 ㅎ의 영향에 의해 ‘꽃/꽃’, ‘무릎/무릎/무릎’으로 어간이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인다.⁷⁾ 즉 고대국어에서는 무성

6) 이기문(1972:93)에서는 ‘二吩’(처용가)의 ‘吩’을 ‘홀’로 읽고 있다.

7) 저비는 ㄴ은 고출 박차(두언중 15:33a), 홀홀녀 무루페 연자(석보 3:38a)

자음 뒤에서도 어간 말음 ㅎ가 존재한 것으로 보기로 한다.

다음의 예도 무성자음인 ‘ㅅ’ 뒤에서 어간 말음 ㅎ가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5) ㄱ. 際叱吩(찬기과랑가) ㄴ. 城叱吩良(혜성가)

(5ㄱ) ‘際叱吩’은 ‘조흠, 조을, 조흠, 조을, 조을흠’ 등으로 해독되고 있다. 이 중에서 후기중세국어는 ‘조’가 일반적이고, ‘吩’을 ‘흠’로 읽는다면 ‘조흠’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조흠’로 해독할 때, (3)의 ‘花吩’, ‘膝吩’와 마찬가지로 무성자음 뒤에서 어간 말음 ㅎ가 실현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5ㄴ) ‘城叱吩良’도 ‘жат힐랑’으로 해독하여 중세국어의 ‘жат’(城)이 고대국어에는 ㅎ말음을 가진 것으로 보기로 한다.⁸⁾

이 외에도 목적격조사 ‘吩’이 사용된 예가 있다.

(6) ㄱ. 慚吩(헌화가) ㄴ. 大吩(안민가)

(6ㄱ) ‘慚吩’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독이 있으나, ‘吩’을 ‘흠/흠’로 읽는 입장에서 ‘허믈흠’로 보기로 한다. (6ㄴ) ‘大吩’의 ‘大’는 음차(音借)로 보기도 하고 훈차(訓借)로 보기도 한다. 음차로 볼 경우 ‘대’와 ‘다’로 읽고 있으며, 훈차로 볼 경우는 ‘한’으로 해석한다. 또 ‘大吩’을 ‘다흠’로 해독하고 중세어 ‘쌍’과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유창균 1994:357-358).

8) 김완진(1980:129)에서는 ㅎ말음 명사의 곡용형에 유래하는 일종의 형태음소론적인 표기로 보고 ‘ㅎ’을 반영하지 않은 표기인 ‘자술랑’으로 해독한다. 또 유창균(1994:743-746)에서는 ‘叱’의 ‘ㅅ’과 ‘吩’의 ‘ㅎ’의 음운 연결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자시힐랑’으로 해독한다.

2. 처소격조사 ‘中’, ‘希’

후기중세국어 시기에 사용된 처소격조사에는 ‘애/에, 익, 예, 의’ 등이 있다. 이들이 향가 표기에서는 ‘中’, ‘希’와 ‘矣’, ‘衣’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전자가 선행하는 체언 어간 말음 ㅎ를 반영한 것이고, 후자는 말음 ㅎ를 반영하지 않은 것임을 밝히도록 한다. 먼저 처소격 조사가 사용된 향가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7) ㄱ. 巷中(모죽지랑가), 世呂中(청불주세가), 歲史中置(상수불학가)
根中(항순중생가)⁹⁾
ㄴ. 過希(현화가)
ㄷ. 此矣(제망매가), 佛體前衣(예경제불가)
ㄹ. 磧惡希(찬기과랑가), 海惡中(보개회향가)

(7ㄱ)에서 처소격조사로 사용된 ‘中’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거의 ‘히’로 해독하고 있다. 반면 (7ㄴ)의 ‘希’에 대해서는 ‘히’ 혹은 ‘익’으로 해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처소격조사 ‘中, 希’에 선행하는 체언이 ㅎ말음을 가진 것으로 보는 연구는 ‘히’ 혹은 ‘회’로 해독하고 있으나, ㅎ말음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연구에서는 ‘애’ 혹은 ‘에’로 해독하고 있다. 먼저 후자와 같은 입장을 취할 때, 처소격조사로 ‘中, 希’를 쓰는 경우와 ‘矣, 衣’를 쓰는 경우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전자와 같이 처소격조사 ‘中, 希’에 선행하는 체언은 ㅎ말음을 가진 것으로 볼 때, ‘矣, 衣’의 경우는 ㅎ말음이 없거나 탈락한 체언에 결합하는 처소격조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7ㄷ)에서 ‘此矣’(제망매가), ‘佛體前衣’(예경제불가)에 사용된 처소격조사 ‘矣, 衣’는 ‘의’로 해독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7ㄱ, ㄴ)과는 다른 것

9) ‘根中’에서의 ‘中’에 대해 양주동(1965) 이후 대체로 ‘根’의 말음 침기로 보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처소격조사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여기에서 다루도록 한다.

으로 보인다. (7ㄷ)에서 ‘海惡中’의 ‘惡中’는 ‘惡中(아귀)>惡希(아회)>良衣(아의)>(애)’와 같이 변한 것으로 본다(유창균 1994:897).¹⁰⁾

이와 같은 ‘ㄱ>ㅎ’의 변화를 반영하는 표기는 다음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8) ㄱ. 國惡支(안민가) ㄴ. 國惡(안민가) ㄷ. 四是良羅(처용가)

(8ㄱ,ㄴ) ‘國惡支, 國惡’의 ‘國’은 후기중세국어에는 ㅎ말음을 가진 것으로, ‘國惡’은 국어사에서 발견되는 ‘ㄱ>ㅎ’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즉, ‘國惡’을 ‘나락’으로 해독할 때, ‘惡’은 말음 첨기로 해석할 수 있고, ‘나락>나랑’과 같이 발달한 것이다.¹¹⁾ ‘國惡支’는 ‘나락+이’로 분석되는데 ‘支(支)’를 지정문자(指定文字)로 보기도 한다(김완진 1980:78). (8ㄷ) ‘四是良羅’도 유창균(1994:520)과 같이 ‘넉이라라’로 해독하고, ‘너기>너히>네’로 보기도 한다. ‘네히어라(양주동 1965), 네히러라(김완진 1980)’로 볼 경우 어간말 ㅎ를 반영한 표기를 ‘是’로 보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3. 기타

목적격조사, 처소격조사 외에도 다음의 예와 같이 어간 말음 ㅎ를 반영한 것이 있다.

(9) 日尸恨(보개회향가) cf. 際天乙(도이장가)

10) ‘海惡中’(보개회향가)과 ‘德海紛’(칭찬여래가)에 쓰인 ‘海’는 현대국어의 전남방언(진도, 완도)과 경남방언에서 ‘바닥’으로 실현된다. 이 ‘바닥’형은 아마도 ‘g>(x)>h’의 변화에서 기원적인 ‘g’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신승용(2003:105)에서도 ‘나랑’의 중성 /h/가 앞선 시기에 /k/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9) ‘日尸恨’은 ‘날흔’으로 해독될 수 있는 것으로 후기중세국어에는 ‘날’(日)에 ㅎ말음이 보이지 않지만, 이전 시기에는 ㅎ말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9) ‘際天乙’은 ‘갯하늘/갯하늘’로 해독할 수 있는데, ‘天’은 후기중세국어에 ‘하늘홀’과 같이 말음 ㅎ가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이 ‘乙’을 목적격조사가 아니라 ‘하늘’의 말음 ㄹ을 첨기한 것으로 보기로 한다.¹²⁾ 유창균(1994:538)에서는 ‘乙’이 균여가에서 매우 생산적이었는데, 유사가에서 일반적으로 목적격조사로 ‘吩’이 쓰였음을 밝히고 이것이 균여가 이후 ‘乙’로 대체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유사가에는 ‘奪叱良乙’(처용가), ‘薯童房乙’(서동요), ‘卵乙’(서동요)에 목적격조사로 ‘乙’이 쓰였는데 이 어휘들은 본래 어간 말음 ㅎ를 가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乙’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균여가에는 목적격조사로 ‘乙’만 쓰인 것이 아니라, ‘德海吩’(칭찬여래가)에서 보는 것처럼 어간 말음 ㅎ를 가질 때에는 그 ㅎ를 반영하기 위해 ‘吩’도 쓰이고 있는 것이다. 향가 자료의 빈곤 때문에 유사가에서 목적격조사 ‘吩’이 ‘乙’로 대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간말 ㅎ를 반영할 때는 ‘吩’로 표기하고 어간말에 ㅎ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乙’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지금까지 향가 표기에 목적격조사로 사용된 ‘吩’, 처소격조사로 사용된 ‘中’과 ‘希’ 그리고 ‘ㄱ>ㅎ’ 변화형을 통해 이들이 체언 어간의 말음 ㅎ를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12) 이러한 예로는 ‘道乙迷波’(참회업장가), ‘道尸迷反’(청불주세가)가 있다. 향가를 ‘노래(歌)’라고 볼 때 가급적 압축된 언어로 표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길 잃어(잃은)’처럼 노래 불렀을 것이다. 즉 ‘乙’, ‘尸’은 목적격조사가 아니라 ‘길’의 말음 ㄹ을 첨기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예는 후기중세국어에 ‘길홀’(월석 9:33)과 같이 말음 ㅎ가 나타난다.

III. ㅎ말음 어간의 재구조화

여기서는 고대국어에 존재했던 ㅎ말음이 15세기 이후 어떤 교체 양상을 보이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 보고, 이를 ㅎ말음 어간의 기저형의 변화, 즉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파악하도록 한다.¹³⁾

1. 체언의 경우

후기중세국어의 체언 어간 말음 ㅎ가 교체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 (10) 가. 안히(원언 상 2-2:121), 쓰히(석보 6:34)
- 나. 안괘(능언 1:63), 짜토(석보 6:23)
- 다. 짜마다(석보 6:8)
- 르. 집 앓 사르물(석보 6:5), 하늬 쫓 스시엔(두언초 7:14)
- 로. 안(훈자 하:34), 짜(훈해 합자해)
- 비. 안괘질(능언 9:56)

(10가~비)은 후기중세국어의 ㅎ말음 체언 중 ‘안ㅎ’(內)과 ‘쓰ㅎ’(地)의 활용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들은 모음이 후행할 때(10가), 평폐쇄음이 후행할 때(10나), 비음이 후행할 때(10다), 사이시옷이 후행할 때(10르), 단독으로 쓰일 때(10로), 복합어를 형성할 때(10비)로 구분된다. 모음이 후행할 때 어간 말음 ㅎ가 실현되고, 평폐쇄음이 후행할 때는 축약에 의한 유기음화를 보여 준다. 반면 비음, 사이시옷이 후행하거나 단독형일 때는 어간 말음 ㅎ가 실현되지 않는다.

13) 오종갑(1979)에서는 15세기 이후의 자료를 대상으로 어두, 어중, 어말 위치에서 실현되는 ㅎ에 대해 공시적, 통시적 고찰을 하였다.

따라서 후기중세국어의 ㅎ말음 체언은 ‘/안ㅎ/’(모음, 평폐쇄음 앞)과 ‘/안/’(그 밖의 환경)의 복수기저형을 가진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수기저형에서 그 교체의 환경이 음운론적 정보로 범주화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ㅎ말음의 변화를 고려할 때 복수기저형을 설정하는 것이 간결한 기술로 보인다.¹⁴⁾ 반면 CV음운론을 근거로 X층과 연결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체언 어간 말음 ㅎ를 부동의 자립분절음(floating autosegment)으로 해석하여 기술하기도 한다(박종희 1993:30). 또한 국어의 후두음층열을 설정하여 자립분절적 해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오정란 1988). 하지만 음절층과 X층에 연결을 맺고 있지 않은 분절음층의 ㅎ를 기저형으로 파악하여 추상적 기저형을 설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0)과 같이 복수기저형을 가진 체언 어간 말음 ㅎ는 근대국어 이후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는다. 우선 (10ㄱ)은 유성음 사이 환경에서의 ㅎ의 약화 탈락으로 인해 ‘안하>아니’와 같은 변화를 보여주고, (10ㄴ)은 ‘안ㅎ#>안#’에 유추되어 ‘안과>안과’와 같이 변화한다. (10ㄷ~ㅂ)은 거의 변화를 보여 주지 않는다. 다만 (10ㄴ)의 ‘안꺾’은 ‘안꺾’으로 변화하였으나 복합어의 환경에서 체언 어간 말음 ㅎ가 흔적을 남기고 있다.¹⁵⁾ 이는 현대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어간 말음 ㅎ의 화석형으로 처리해도 좋을 듯하다. 근대국어 이후에는 복합어를 제외하면 체언 어간 말음 ㅎ가 실현되지 않는다.

다음은 ㅎ유지형과 ㅎ탈락형의 예를 보인 것이다.

-
- 14) 이진호(2003:181-183)에서는 ‘비음, ㅅ, 휴지 앞’이라는 환경은 ‘음절 경계 앞’이라는 정보로 범주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복수기저형의 대표성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 15) ‘안꺾’은 현대국어의 일부 방언에 [안바끄로]와 같이 발음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는 복합어 경계를 어절 경계로 조정하여 발음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어간 말음 ㅎ를 화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다.

- (11) 가. 하느룬(석보 6:35), 하느룰(석보 9:25), 하느래(석보 6:35)
 - 나. 하늘이(소학 6:22a), 하늘애(소학 5:19a), 하늘와(능엄 8:131, 소학 4:50b), 하늘과(두초 21:2), 하늘도(월인 7:14)¹⁶⁾
 - 다. 하늘흔(원각 서:29), 하늘홀(능엄 8:123), 하늘해(석보 6:19), 하늘히(소학 6:92b), 하늘과(능엄 2:20), 하늘토(월인 172)

(11)에서 알 수 있듯이 후기중세국어에는 말음 ㅎ를 유지하는 예와 ㅎ가 탈락하는 예가 공존하고 있다. (11가)과 (11나)은 각각 연철과 분철 표기된 것으로 ㅎ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11다)은 말음 ㅎ를 반영하고 있다. 홍운표(1994:236-237)에서는 (11나)과 같이 선행 분절음이 ㄹ일 때 ㅎ가 탈락되어도 ㄹ이 후행 음절에 연철 표기되지 않고 분철 표기되는 것에 대해 표기상의 보상성(報償性)으로 보고 음소 ㅎ이 탈락한 흔적을 남긴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우리는 ㅎ말음을 가지지 않았던 체언도 분철 표기된 예를 16세기 이후의 문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¹⁷⁾ 그런데 (11나)의 소학언해(1588)에 오면 ㅎ말음이 탈락한다.

이는 화자들이 기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수 기저형을 단일 기저형으로 단일화했다고 할 수 있는데, 패러다임의 수평화(paradigmatic leveling)가 일어난 것이다.¹⁸⁾ 즉, 복수 어간의 단일 어

16) 16세기의 교정청본 소학언해가 분철 표기의 확대를 반영한 문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늘이’와 같은 분철 표기에 대해 여러 견해에 있지만 이 글에서는 절음화의 확산이 음절 구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 차재은(2003:247)에서는 ㅎ를 [h]로 보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공명음 사이에서 실현된 ㅎ를 [ɦ]로 보고 기식성이 약화된 ‘하늘히’[hanAlɦi]의 /h/가 탈락되어 ‘하느리’와 같은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하늘이’와 같은 분철 표기를 절음화로 인한 분철 표기의 확대로 해석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7) 분철 표기가 확대된 문헌으로 알려진 소학언해(1588)의 ‘글월애(6:16b), 밤이(5:99b)’와 같은 어휘가 ㅎ말음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18) 패러다임 수평화는 어간의 복수기저형 중 하나의 소실을 통한 어간 단일화를 말한다.

간화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11)과 같이 모음 조사가 결합할 때 가장 먼저 어간의 재구조화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10)의 복수 기저형 ‘/안ㅎ/’과 ‘/안/’은 근대국어 이후 기저음운이 /안/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후기중세국어에서 ‘/XVh-/ ~ /XV-/’와 같이 교체를 보이던 ㅎ말음 체언 어간이 이후 근대국어 시기를 거쳐 18세기말 무렵에는 ‘/XV-/’ 어간으로 단일화가 진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어간 말음 ㅎ의 음절말 위치에서의 제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18세기말의 자료에는 후기중세국어 시기에 ㅎ말음을 가지지 않았던 체언들에 모음 조사가 연결되면 말음 ㅎ가 나타나는 예들이 있다.

- (12) 초히라(무원록 1:19b), 발힐(종덕 하:33a), 가힌(가례 도:8a),步히며(무원록 1:22b), 상해(호남운음 7b), 썩히(훈서 2:10a), 庫히(무원록 1:56), 보히(무원록 3:53)

넉년희 물어디거든(明年倒了)(번역박통사, 상:10)¹⁹⁾

이와 같은 예를 두고 김동소(1982:2)에서는 ‘庫히’의 ㅎ가 유추에 의한 것으로 보았고, 홍윤표(1994:239-240)에서는 유성적 환경에서 ㅎ가 탈락되어 가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과도교정의 표기로 해석한다. 반면 오종갑(1986)에서는 어간 말음의 폐음화와 관련시켜 어간 말음이 형태소 경계에서 폐음화되자 후두 긴장을 초래하고, 이 후두 긴장을 소멸의 운명에서 아주 약화된 ㅎ중성 체언의 ㅎ와 유사하게 인식하여 ㅎ으로 표기하게 된 것으로 본다. 어간 말음을 폐음화시키면 성문이 좁아져 성문 안의 압력이 올라가 최

19) 한자어 ‘넉년’에 ㅎ말음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ㅎ가 첨가되었다고 보기도 한다(유창돈 1980:115).

고 상태에 이르렀을 때 다음 모음을 발음하기 위해 성문을 갑자기 개방하면 유출되지 않은 유기성 ㅎ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12)와 같은 경우가 비록 복수 어간이 단일 어간으로 재구조화되는 시기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말음 ㅎ에 대한 유추로 어간이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이 시기에 ‘<초>초 ㅎ’로 재구조화된 다음 현대국어에서 다시 ‘<초 ㅎ>초’로 재구조화되었다고 해야 하는데, 언어 변화의 일반적인 방향을 고려할 때 상정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오종갑(1986)에서와 같이 현실 발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로 한다. 즉 형태소 경계에서 음절 말음의 절음화에 의해 발생한 ㅎ를 표기에 반영한 것으로 보기로 한다.

2. 용언의 경우

용언 어간 말음 ㅎ는 단독으로 어간을 이루는 경우와 ㅎ를 말음으로 가지는 어간말 자음군의 경우로 나뉜다. 먼저 ㅎ 단독으로 어간을 이루는 경우부터 살펴 보도록 한다.

- (13) 가. 노하(석보 6:1), 노ㅎ사(용비 41), 저호리(월석 2:38), 저허(석보 9:13)
- 나. 노티(두언초 8:32), 저키ㅎ니(월석 7:24), 나티(능언 6:32), 녀코(월석 1:29)
- 다. 노츱고(석보 9:22), 노습고(월석 2:73), 낫스와(진언 42), 저삿바(월석 1:10), 저츱고(월석 2:59), 녀츱고(월석 1:7)
- 르. 논노니(월석 13:19), 논논(두언초 7:11), 절노라(목우 7), 날노라(월석 10:25), 낱노나라(월석 2:49) cf. 다쁘나라(훈언), 디뉘(석보 19:14)

(13가~르)은 후기중세국어의 ㅎ말음 용언에 어미나 접사가 연결될 때의 교체형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모음이 후행할 때(13가), 평폐쇄음이 후행할 때(13나), ㅅ이 후행할 때(13다), 비음이 후행할

때(13ㄷ)로 구분된다. 체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음이 후행할 때 어간 말음 ㅎ가 실현되고, 평폐쇄음이 후행할 때는 축약에 의한 유기음화를 보여 준다. 이와 같이 (13ㄱ, ㄴ)의 경우는 어간 말음 ㅎ가 실현되지만, (13ㄷ)의 ㅅ이 후행할 때는 ‘노쑹고’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13ㄷ)에서 비음이 후행할 때 ‘논노니’와 ‘논논’ 등으로 실현된다.

(13ㄷ)에서 음절말의 ㅎ가 ㅅ와 결합할 때 ‘노쑹고’ 혹은 ‘놏스 와’로 실현된다. 이에 대해 말음 ㅎ가 ㅅ에 동화되어 둘 다 자음군 [ss]로 발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각각 다르게 발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3ㄷ)의 경우는 어간 말음 ㅎ가 형태소구조제약 혹은 음절구조제약에 의해 이 위치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8종성 중 가장 무표적인 자음인 ㄷ로 중화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Young-Key Kim-Renaud 1978). 그 이유는 음절말의 ㅎ가 ㄷ로 중화된 후 후행하는 ㄴ에 동화되어 ‘논논’으로 실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²⁰⁾

결국 (13)의 경우는 체언의 경우와는 달리 단일 기저형 /XVh-/을 가진 것으로, 환경에 따른 규칙의 적용에 의해 다른 음성형으로 실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13)은 후기중세국어 시기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는다.

(13ㄱ)은 근대국어 시기에 유성음 사이의 환경에서 ㅎ의 약화 탈락에 의해 ‘노하>노아’, ‘노흐니>노으니’와 같은 변화를 보여준다. 이 예는 현대국어에 이르면 ‘놏’, ‘노:니’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활음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로 설명되는 것이다. 반면 (13ㄴ)은 ‘노코, 노터라’와 같이 평폐쇄음이 후행할 경우 어떤 변화도 겪지

20) ㅎ는 음절말에서 ㄷ으로 평폐쇄음화된다고 보는 견해와 ㄷ으로 평폐쇄음화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또 ‘디반’과 같은 예가 표기자들의 음절 의식을 반영한 형태적 표기인지, 실제 발음을 반영한 표기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않아 체언의 경우와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13ㄷ)은 선어말어미 ‘-습-’의 소멸로 더 이상 문헌에 보이지 않는다. (13ㄹ)은 ‘논는’과 같이 비음동화의 예만 나타난다. 따라서 ㅎ말음 용언의 경우는 체언의 경우와는 달리 근대국어 시기까지는 단일 기저형으로 어간의 재구조화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13ㄴ)과 같은 예가 경음 혹은 기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ㅎ말음 어간’의 경우 현대 방언에서의 실현형이 경음과 기음으로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수ㅎ#개’는 동남 방언에서는 [súk’ɛ], 그 외의 지역에서는 [súkhɛ]로 실현된다. 또 ‘짙+고’는 남부 방언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č’ik’o] 혹은 [č’ikho] 등으로 달리 실현되는 것이다.²¹⁾ 이는 현대 방언에서 평폐쇄음이 후행할 때 지역에 따라 달리 어간의 재구조화를 경험한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²²⁾

ㅎ를 말음으로 가지는 어간말 자음군의 경우 15세기의 음절구조 ‘C0VC1C2’에서 C1의 위치에 ㄹ과 ㄴ이 올 수 있다.²³⁾ 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4) ㄱ. 슬히(석보 11:8), 슬흘씨오(월석 2:22), 글훈(월석 23:75), 글호미(능엄 8:101), 울흐니(월석 1:42), 울흐샷다(법화 3:146), 울흐시니(용 39), 울히(석보 서:5)
 ㄴ. 슬타니(두초 22:30), 슬턴(두초 21:13), 슬프실씨(용 91), 울

21) 최명옥(1982:8)에서는 후기중세국어의 ‘-분-(注)’에 해당하는 어형이 서남방언(삼천포어)에서는 ‘pú-’, 동남방언(대진어)에서는 ‘púh-’라는 기저형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22) 김현(2001:107-110)에 의하면 화자가 발화한 활용형을 청자가 새로이 분석함으로써 어간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23) ㅎ말음의 생성에 대해 용언의 경우 어간말 모음의 탈락으로 인한 어간 재구조화로 설명할 수 있는데, ㅎ말음 체언도 C1의 위치에 ㄹ, ㅁ, ㄴ 등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언과 동일한 생성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커시니와(금삼 2:9), 올타(용 106), 만타라(월석 10:23), 만터
니(법화 6:15)

ㄷ. 슬쫌보매(월곡 서:10), 슬쫌바(용 91)

ㄹ. 슬노니(두초 7:16), 슬놏다(두초 15:40), 일논디라(능엄 2:98),
일늑니(능엄 1:62) cf. 슬뵤니(능엄 2:9), 일뵤니라(능엄 2:2)

(14ㄱ, ㄴ, ㄷ)은 (13ㄱ, ㄴ, ㄷ)과 동일한 교체를 보인다. 다만 (14ㄷ)의 경우 /ㅅ/을 자음군으로 볼 경우 어중에서 세 자음이 연속해서 발음되었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ㅎ의 ㄷ으로의 중화를 인정하여 ‘슬+습- → 슬습- → 슬쫌-’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14ㄹ)에서 ㄴ어미가 연결될 때 (13ㄹ)의 단독 어간일 경우에는 ㅎ가 ㄷ으로 중화되었으나, 이 경우에는 중화의 과정이 없이 바로 ㅎ가 삭제된다.²⁴⁾

따라서 단일 어간을 형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단일 기저형 /XVCh-/을 가지고, 환경에 따른 규칙의 적용에 의해 다른 음성형으로 실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4)는 근대국어 이후에 유성음 사이의 환경에서 ㅎ의 약화 탈락을 보여 주지만 기저형은 변하지 않는다.

IV. ㅎ말음 소멸의 시기 및 원인

체언 어간과는 달리 용언 어간의 경우 ‘만ㅎ-’와 같이 어간말 모음의 탈락으로 인해 ‘ㅁㅎ-’으로 어간 재구조화가 일어난 어휘들이 있다. 반면 체언 어간 말음 ㅎ는 15세기에 오면 일부 곡용의 환경에서 실현되다가 이후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는 체언

24) ‘함늑니’(능엄 8:5)에서 ㅎ를 실제 발음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흥미로운 예임에는 틀림없다.

어간말 ㅎ에 국한하여 소멸 시기 및 소멸 원인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²⁵⁾

후기중세국어 문헌에 보이는 ㅎ말음 체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다. 그런데 그 소멸 시기에 대해서는 15세기 혹은 16세기에 동요를 보이다가 근대국어 시기 즉 18세기말 이후에 와서야 소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⁶⁾ 그러나 앞에서 우리는 고대국어를 반영하는 향가 자료의 검토를 통해 향가 시기에 ㅎ말음을 가진 어간이 존재했음을 보았다. 더욱이 향가 자료에서 ㅎ말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어간이 후기중세국어 문헌에서도 ㅎ말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미 탈락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다음의 예는 향가 시기에 동일한 어휘가 ㅎ말음이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향가 시기에 이미 ㅎ말음이 동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5) ① ㄱ. 吾勝不喻慚勝伊賜等<현화가>
 ㄴ. 吾隱去內如辭叱都<제망매가> 皆吾衣修孫<보개회향가>
- ② ㄱ. 此勝喚惡支治良羅<안민가>
 ㄴ. 此矣有阿米次勝伊遺<제망매가>
- ③ ㄱ. 花勝折叱可獻乎理音如<현화가>
 ㄴ. 巴寶白乎隱花良汝隱<도솔가>
- ④ ㄱ. 一等勝除惡支<도천수관음가>

25) ㅎ말음 용언의 발달에 대해서는 ㅎ탈락 현상을 어휘 규칙(lexical rule)과 후어휘 규칙(post-lexical rule)으로 설명하는 박중희(1993:35-42)를 참고할 수 있다.

26) 이기문(1998:164, 218)에서는 ㅎ말음의 소실에 대해 15세기부터 일부 동요를 보이고, 근대 후기에 와서야 소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정연찬(1981:23-32)에서는 소학언해(1588) 무렵에서부터 ㅎ가 사라지기 시작하여 윤음언해(18세기말)에 오면 ㄱ로 끝난 체언의 곡용에서 거의 소실되고(1단계), 윤음언해 이후에 모음으로 끝난 체언의 곡용에서 ㅎ가 소실된 것(2단계)으로 모음 충돌 회피 때문에 2단계가 늦어진 것으로 본다.

ㄴ. 一等隱枝良出古<제망매가>²⁷⁾

고대국어 시기에도 ㅎ말음 체언이 존재한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는 (15)에서 ㄱ은 ㅎ말음을 반영한 것이고, ㄴ은 ㅎ말음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①에서 ‘吾盼’은 ‘吾’의 ㅎ말음을 반영한 것인데, ‘吾隱’과 ‘吾衣’의 경우는 ㅎ말음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런데 ‘吾隱’은 주체격, ‘吾衣’는 처소격인 점이 흥미롭다. ②~④의 예에서도 주로 목적격조사의 경우는 ㅎ말음을 반영하고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 결국 향가 시기에 이미 모음 어미가 결합될 때 체언 어간 말음 ㅎ가 동요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²⁸⁾ 이러한 체언 어간 말음 ㅎ의 동요는 15세기로 이어진다.

그런데 ㅎ말음 체언의 ㅎ가 동요를 보이기 시작한 때를 대체로 15세기로 보거나 16세기말로 보고 있으나, 지금까지 고찰한 것처럼 향가 시기에 이미 ㅎ말음이 탈락되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향가 시기에도 체언 어간 말음 ㅎ가 일부 존재했으며 이 시기부터 소실되기 시작한 것이다.

아울러 홍윤표(1994:233-240)에서는 근대 국어 시기에 ㅎ말음 체언의 ㅎ가 ‘ㄱ, ㄴ, ㄷ, 모음’ 뒤에서 ‘ㄹ>ㄷ>ㄴ>모음’의 순서로 탈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차재은·정명숙·신지영(2003)에서 이루어진 공명음 사이의 /ㅎ/의 음성적 실현과 탈락 양상에 대한 음성 실험 결과가 주목된다. 이 연구에서 지적인 현대 국어에서 공명음 사이의 /ㅎ/의 탈락 빈도가 선행분절음이 ‘ㄷ>ㄱ>ㄴ>ㅇ>모음’인 순서로 높다는 사실은 홍윤표(1994)에서 제시한 근대 국어의 ㅎ말음 탈락의 순서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

27) ‘一等隱’의 ‘隱’은 말음 첨기로 해석할 수 있으나, 체언 어간 ‘一等’의 말음 ㅎ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예와 동일하다.

28) 향가 시대에 이와 같은 ㅎ의 탈락형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향가가 쓰여지기 이전 시기의 ㅎ말음 체언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보기도 한다(김정숙 1985:19-24).

렇다면 고대국어부터 근대국어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소멸의 과정을 거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ㅎ말음 체언의 ㅎ의 소멸 원인에 대한 연구는 기후와 지리적 환경이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김형규 1962)가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말음 ㅎ의 변화 내지는 소실이 부분적으로 선행음과 관계가 있고, 말음 ㅎ를 소멸로 이끈 최초의 동인(動因)을 어말평성화(語末平聲化)라는 성조 변화로 보는 연구도 있다(정연찬 1981:32-34). 즉, 소학언해(1588) 무렵에 어말평성화가 확대되고 그러한 경향이 ㅎ의 마찰성을 약화시켜 ㅎ의 소멸을 야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음 ㅎ의 소실은 향가 시기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말평성화가 말음 ㅎ의 소멸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어말거성의 원칙이 지켜졌던 15세기에 말음 ㅎ가 소실된 예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도 그렇다.

우선 어말평성화가 확대된 문헌으로 보는 소학언해(1588)에서 말음 ㅎ의 소실이 어말평성화에 의한 것인지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소학언해(1588)는 거의 말음 ㅎ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의 예에서 말음 ㅎ가 탈락된 것이 보인다. 말음 ㅎ가 탈락된 예만 방점(傍點)과 함께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⁹⁾

- (16) ㄱ. 겨울에(6:29b)(LHH), 겨울와(1:13a)(LHH), 겨울의(4:46a)(LHH),
코를(2:7b)(HH), 줄음썰로(4:41b)(LLHH), 고을로셔(6:24a)(LLHH),
늑물도(6:29b)(LLH), 늑물와(5:44a)(LLH), 뭇나라와(6:23a)(LLHH),
나죄를(2:51a)(LLH), 나죄로(4:46b, 5:97a, 6:70a)(LLH),
막을과(2:45b)(LLH), 막을과(6:83b)(LLH), 마으를(6:113b)(LHH),
마을애(6:84b)(LHH), 마을이라(6:118a)(LHHH), 마을이라(6:45b, 6:72a)(LHHL),
서울에(6:11b)(RHH), 아하들

29) 방점 표기는 무점(無點)은 L(平聲), 1점은 H(去聲), 2점은 R(上聲)로 나타내기로 한다.

로(6:6b)(LHHH), 일들로써(5:5a)(RHLH), 뒤셔(2:3a)(RH), 하늘썬(4:7a, 5:40a, 5:56a)(LHH), 하늘애(5:19a)(LLH), 하늘와(4:50b)(LHH), 하늘이(6:22a)(LHH)
 ㄴ. 갈로써(6:56a)(HLH) cf. 갈흐로써(6:57a)(HLHH), 코와(3:7a)(HL), 즐음썬로(4:42b)(LLHL), 아이들로(6:95a)(LLHL)

(16)에서 일부 예를 제외하고 모두 성조형이 L형인 특징이 있어 주목되지만 이것이 소멸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이 문헌에서는 나히(年)(HL)와 나히(年)(HH)가 공존하고 있는데, 어말 평성화의 관점에서는 전자의 표기가 ‘나이’로 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이는 어말평성화가 말음 ㅎ의 소멸과 관련이 없음을 말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6ㄴ)의 예를 두고 어말평성화가 적용되어 소멸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16ㄱ)의 예는 어말 거성의 원칙을 지키고 있어 다른 원인에 의해 말음 ㅎ가 소멸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³⁰⁾

말음 ㅎ의 소멸에 대해 형태소 형판(morpheme template)의 재구조화에 의하여 ㅎ가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박종희 1993:30). 이 견해에 따르면 X층과 연결을 맺고 있지 않은 분절음층의 ㅎ가 부동 상태로 존재하다가 음성적 실현을 보지 못하고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초분절음소와는 달리 분절음소인 ㅎ가 다른 분절음들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ㅎ의 소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앞서 고대국어 시기부터 ㅎ의 소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다. 그렇

30) 김완진(1973)에서 표면성조형에 가해지는 변동 규칙인 율동규칙(律動規則) - 거성불연삼(去聲不連三), 어말평성화(語末平聲化) -을 제시한 이래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반면 김영만(2000)에서는 중세 국어 운소의 세 유형을 설정하고 운소 규칙에 의해 현실음을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어말평성화는 생략과 기저음 표시로 이해함으로써 인정하지 않는다.

다면 향가 시기의 처소격조사 ‘中’이 ‘기/괴(中)→히/희(希)→의(衣)(矣)’로 변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락>나랏’와 같이 체언 어간 말음 ㅎ도 ‘ㄱ>ㅎ’ 변화 결과로 유성음 사이에서 약화 탈락한 것으로 판단된다.³¹⁾

다시 말해 고대국어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어간말 모음의 탈락으로 인한 음절 구조의 변화와 ‘ㄱ>ㅎ’의 변화로 인해 음절말에 위치하게 된 ㅎ가 그 음성적 특징 및 체계상의 제약으로 인해 불안정하여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모음 조사와 결합할 때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되어서는 유성음 사이의 환경에서 약화·탈락되는 과정을 겪어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본 연구는 고대국어에서의 어간 말음 ㅎ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역사적으로 그 말음 ㅎ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간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가 표기에 사용된 ‘吩’, ‘中’과 ‘希’, ‘ㄱ>ㅎ’ 변화형을 통해 이들이 체언 어간의 말음 ㅎ를 반영한 것임을 보았다. ‘吩’이 사용된 경우, 후기중세국어에도 동일하게 어간 말음 ㅎ가 실현되는 예들

31) ‘ㄱ>ㅎ’ 변화에 대해서는 김동소(1982:3)를 참고할 수 있다. 즉, ㄱ말음을 갖는 국어 한자음과 상고음 재구를 통해 고유어 어간 말음의 ‘ㄱ>ㅎ’ 변화를 증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동소(2003:140-142)에서는 ㅎ말음 체언의 생성에 대해 형태론적 재해석(morphological reinterpretation) 혹은 유추로 보고 ㅎ말음의 발생과 관계있는 음운론적, 형태론적 과정이 /h/음이 발생한 이후의 고대 한국어 시대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았다. 또한 박중희(1993:20-22)에서는 15세기의 ㅎ말음 체언의 조어형을 *___Vk(g)V로 재구한 바 있다.

이 있는 반면, 향가 시기에만 ㅎ말음이 나타나다가 후기중세국어에는 사라진 것도 있었다. 아울러 고대국어는 후기중세국어와 달리 일부 무성자음 뒤에서도 어간 말음 ㅎ를 가진 예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中’, ‘希’이 사용된 경우는 ‘矣, 衣’와 구별하여 어간 말음 ㅎ를 가진 것으로 보았고, ‘ㄱ>ㅎ’ 변화를 어간 말음 ㅎ와 관련하여 해석하였다.

ㅎ말음 체언은 후기중세국어에 ‘/XVh-/ ~ /XV-/’와 같이 교체를 보이다가 근대국어 시기를 거쳐 18세기말 무렵에는 ‘/XV-/’로 어간의 재구조화가 일어나 어간의 단일화가 진행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반해 ㅎ말음 용언은 기저형이 ‘/XVh-/’로 어간에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으나 규칙의 적용에 따라 다른 음성형으로 실현된다. ㅎ말음 체언이 아닌 어간에 ㅎ가 생겨나는 예에 대해서는 절음화에 기인한 현실 발음의 반영으로 파악하였다.

ㅎ말음의 소멸 시기에 대해서 고대국어 시기부터 근대국어 시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았다. 그 소멸 원인은 ‘ㄱ>ㅎ’ 변화 결과로 약화 탈락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주제어(Key words): 음 어간(h- final stem), 교체(alternations), 어간의 재구조화(the reconstruction of stem), 패러다임의 수평화(paradigmatic leveling), ‘ㄱ>ㅎ’변화(the changes of ‘k>h’)

참고문헌

- 김경아, 「용언어간말음 ‘ㅎ’의 교체에 대하여」, 『언어』 제23권 제1호, 한국언어학회, 1998.
 김동소, 「ㅎ말음 명사의 어원」, 『국어학논총』(공포 조규설 교수 화갑 기념 논문집), 형설출판사, 1982.

- 김동소, 『중세한국어개설』, 한국문화사, 2003.
- 김영만, 「국어 초분절소(운소)의 바른 이해를 위하여」, 『동양학』제30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0.
- 김완진, 『중세국어성조연구』, 탑출판사, 1973.
-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 김정숙, 「ㅎ말음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김 현, 「활용형의 재분석에 의한 용언 어간 재구조화」, 『국어학』37, 국어학회, 2001.
- 김형규, 『증보 국어사연구』, 일조각, 1962.
- 박종희, 「ㅎ말음 체언의 통시적 연구」, 『원대논문집』제21·1집, 원광대학교, 1987, [박종희, 『국어 음운론 연구(II)』, 원광대학교출판부, 1993에 재수록].
- 박종희, 『국어 음운론 연구(II)』, 원광대학교 출판부, 1993.
- 신승용, 「/k>/h/ 변화에 대한 고찰」, 『국어학』41, 국어학회, 2003.
- 양주동,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1965.
- 오정란, 「국어 후두음층열의 정립」, 『주시경학보』제2집, 탑출판사, 1988.
- 오종갑, 「‘ㅎ’의 음운사적 고찰」, 『한국언어문학』제17·18집, 한국언어학회, 1979.
- 오종갑, 「폐음화와 그에 따른 음운현상」, 『한민족어문학』제13집, 한민족어문학회, 1986.
- 오종갑, 『국어 음운의 통시적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8.
- 유창균, 『향가비해』, 형설출판사, 1994.
- 유창돈, 『이조국어사연구』, 반도출판사, 1980.
- 이기문, 『국어음운사연구』, 국어학총서3, 국어학회, 1972.
- 이기문,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1998.
- 이진호, 「국어 ㅎ-말음 어간의 음운론」, 『국어국문학』133, 국어국문학회, 2003.
- 정연찬, 「근대국어 음운론의 몇 가지 문제」, 『동양학』11, 1981.
- 정영호, 「소학의 언해본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차재은, 「5세기 우리말의 후음 관련 문제들」, 『한국어학』20, 한국어학

- 회, 2003.
- 차재은·정명숙·신지영, 「공명음 사이의 /ㅎ/의 실현에 대한 음성, 음운론적 고찰」, 『언어』제28권 제4호, 한국언어학회, 2003.
- 최명옥,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학교출판부, 1982.
- 최임식, 「국어 내파화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허 응, 『국어 음운학-우리말 소리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1985.
- 홍윤표, 「근대국어의 표기법 연구」, 『민족문화연구』19, 고려대학교, 1986.
- 홍윤표, 『근대국어연구(I)』, 태학사, 1994.
- Jeffers, R. and I. Lehiste,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The MIT Press, Cambridge, 1979.
- King, R. D,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 J, 1969.
- Young-Key Kim-Renaud, 「The Syllable in Korean Phonology」,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edited by Chin-W.Kim Columbia, S.C.: Horn-beam Press, 1978.

The Changes of a final phoneme 'h' and
the reconstruction of its stem

Jeong, Yeong-Ho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confirm the changes, that occurred to Ancient Korean due to the disappearance of the final phoneme 'h' and when these changes occurred and why.

My analysis of the above is below :

1. Through '𪎠', '中' and '希', the changes of 'ㄱ>ㅎ' used inscription of "Hyang-ga", I ascertain that also in ancient Korean the substantives with a final phoneme 'h' existed.

2. The substantives with phoneme 'h' had showed alternation like /XVh-/ ~/XV-/ in the latter period middle Korean but after it was unified as /XV-/ stem structure.

3. When the substantives which don't have a final phoneme 'h' are connected with the vowel onset, the shown examples of the final phoneme 'h' is the reflection of the original pronunciation which is caused by 'JeolEumHwa'.

4. A declinable word with a final phoneme 'h' which its underlying form is /XVh-/ is shown nothing to stem structure,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rules it becomes other sounds.

5. With regard to the disappearance of a final 'h', the Final 'h' started to disappear during the Ancient Korean Period and continued to do so up until the Modern Korean Period. The reason of its disappearance is due to its weakening and its omiss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changes of ㄱ>ㅎ.

정영호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740-766) 경북 김천시 신음동 1309 주공그린빌아파트 202-1001호

전화번호 : (054)433-8802, 016-523-8802

전자우편 : jyh3535@hanmail.net

이 논문은	2006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6년	11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6년	12월	30일	간행함